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사진 : 최경락 빅토리아노(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사순 제4주일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16, 17ㄱ~17. 3ㄴ~4. 5. 6 (◎ 1)

화답송 시편 23(22), 1~3ㄱ. 3ㄴ~4. 5. 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2.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3.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

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옵니다. ◎

4.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에페소서 5, 8~14

복음환호송 요한 8, 12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요한 9, 1~41

영성체송 요한 9, 11. 38 참조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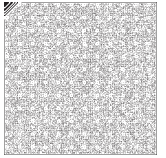


www.catholicbusan.or.kr

▶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이 주간의 축일

♣ 26일 : 루드제로, 마르치아노, 막시마, 몬타노, 바실리오, 베드로, 베르틸로, 브라울리오, 세라피온, 알프월드, 암모니오, 요비노, 에우티키오, 엠마누엘, 이레네오, 카스톨로, 카시아노, 콰드라토, 테오도로, 테오도시오, 테클라, 펠리치타, 펠릭스



고정관념과 영적인 눈뜸

어느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그것은 편견(偏見)과 선입견(先入見)이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의 고정관념(固定觀念)에서 비롯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란 이미 형성된 나의 것(古)이 견고한 어떤 틀 속(口)에 자리 잡은(定)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만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갈등요인이 바로 이런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왜곡된 생각인 고정관념의 지지대는 ‘영적인 눈뜸’입니다. 예수님께서 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중심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요한 9, 4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가리키시며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눈멀음뿐 아니라 영적인 눈멀음까지 치유 받은 태생소경에게 하셨듯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요한 9, 7)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뜸이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동시에 단순한 객관적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제1독서에서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 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1사무 16, 7)는 말씀처럼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1사무 16, 7) 주님의 눈으로

마음을 보는 것이고 속 알맹이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제2독서에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자기중심에 갇힌 어둠의 틀을 벗어나 빛이신 주님 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세상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사순 시기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뜸에서 비롯됩니다.




김영규
안셀모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지금까지

어느 날의 일기

마감 넘긴 원고로 고민하다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원고는 끝나 있었고 심지어 명문장이었다.
기적이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꿈이었다.
혹시나 파일을 여니 그대로였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신앙처럼.
내가 가만있으니 신도 가만있더라.
내가 의지를 보일 때
그제야 신도 기척을 내시더라.

글·그림 : 이영 아네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3.27(월)~28(화)
김영규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3.29(수)~4.1(토)
정우학 신부(물운대성당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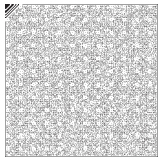
문자참여 #2340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3.31(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청년성서모임 '아르카' 찬양팀

2017 신부들의 수다
참여보세요~프로젝트

타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목소리 편지를 전해보세요!

방송 : 매주 토요일 13:00~14:00
참여 신청 : (051) 600-8825
선물 : 10만원 상품권(백화점)



주님, 어디 있을까요

민 정 아 루치아

이맘때면 절절히(切切-)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 내 곁을 훌연히 떠난 대녀들이다. 어디서 무얼 하고 지내며 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모든 게 궁금해진다. 연락이라도 한 번 해주면 좋으려만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서는 감감무소식이 되었으니, 비록 몸은 떠났을 지라도 대모로 천상의 인연을 맺은 사이니 어디서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늘 기도한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아 사순절이 되면 잃어버린 대녀들을 한 사람씩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한다.

지난 가을이었다. 원주교구에서 성지순례를 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차 안은 이미 무르익은 순례 길 분위기에 서로들 얘기하느라 시끌벅적했고 강원도 산골을 지나던 터라 전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간간이 이어지는 통

화 사이로 “저는 000테레사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 로사 엄마인데 기억나시는지요.” “대모님 찾으려고 영세 받은 온천성당 사무실에 가서 물었더니 얼른 전화번호를 알려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딸하고 같이 영세를 받은 테레사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영세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떠난 대녀라 늘 애잔한 마음이 남아있었는데 너무 반갑고 궁금해 당장 달려가 만나고 싶었다. 전화를 끊고 테레사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보았다. 그녀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스스로 신앙을 찾아 성당을 나왔고 어린 딸을 앞세우고 열심히 교리공부를 했다. 수녀님께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대모로 구해 달라 부탁해놓고 영세 받은 지 6개월도 채 안 돼 친정엄마에게 딸을 맡겨두고 말도 없

이 떠나버렸다. 무슨 연유인지 궁금해 친정으로 찾아갔더니 어린 것만 졸랑졸랑 나와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 후 딸 로사를 보러 몇 번을 갔었지만 어느 날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어머니마저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자 연락이 끊어졌다.

27년이 흘렀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사느라 주님을 잊고 지냈어도 신앙을 찾아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특별한 부르심이라 생각한다. 떠났던 대녀가 돌아올 때면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은총의 때를 보내고 있다. 쉬고 있는 대녀들이 당신께 돌아와 파스카 축제를 다함께 손잡고 지내고 싶은 것은 나의 욕심일까. 이번 사순절에는 미안함의 꼬리표를 내려놓고 더 사랑하라는 부르심만 기억하고 싶다.

■ 수필가 1004luciamin@hanmail.net

환경과 생명 안식 없는 사회

성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든 상관없이 주어진 일에 매몰되어 판단을 정지하고 그저 딱 오늘 하루만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라고 비판하기엔 안스럽고, 어리석은 세대라고 부르기엔 너무 영악합니다. 그저 한 마디로 피곤한 세대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이거니와 “너의 모든 짐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신명 5, 14)는 안식일에도 일은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순 시기,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촌의 들판을 바라봅니다. 이미 3월에 들어 서면서부터 온 들녘은 논밭을 가느라(경운, 耕耘)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마태 10, 26)라고 하셨던가요? 농부가 땅을 가는 것은 땅속 깊이 숨을 불어넣어 주고, 흙을 곱게 갈아 식물의 뿌리가 잘 뻗어가게 하며, 흙을 갈아엎어

햇빛으로 나쁜 균을 소독하려는 것입니다. 곧 땅의 속살을 드러내고 그 안을 꼼꼼히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작물은 좋은 흙에서 나기 마련이기에, 먼저 좋은 땅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속살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일에 매몰되어 놓쳐버린 마음 사정을 살피는 것이 가장 절박합니다. 이 계절, 농부가 서둘러 작물을 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온유한 사람이 차지 않게 된다는 그 땅(마태 5, 5 참조)에 애정을 쏟는 이유를 가능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군들 불행하거나 정신없이 살기를 원하겠느냐만서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창세 9, 10)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다는 것은 나의 속사정을 살펴 나를 넘어선 모든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는 첫 작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4월의
도서, 영화

내 삶의 디딤돌, 잠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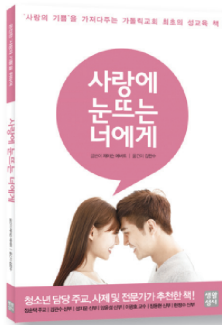
정규한 지음 | 성서와함께 | 9,000원



이 책은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심'입니다. 저자 특유의 문체로 쉽고 자세하게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잠심'을 익힐 수 있고, 또 익히고 싶다는 원의를 품게 됩니다. 문제는 연습입니다.

사랑에 눈뜨는 너에게

제이슨 에버트 지음 | 김한수 옮김
생활성서사 | 9,000원



부모도 알지 못하는 성과 사랑, 결혼, 가정에 대해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잘 정리해 줍니다. 따라서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꼭 필요한 책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위에서 성 문제를 다루지만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오히려 더 섬세하고 유연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자크 필립 지음 | 추교윤 옮김
바오로딸 | 11,000원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 안에 기도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려주고, 기도의 길을 꾸준히 견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누는 정담'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폴로지

The APOLOGY

- ▶ 상영관 : 가톨릭소극장(아트씨어터C&C)
- ▶ 상영시간표 :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442-0602, cafe.naver.com/cnctheater
- ▶ 관람료 : 주부 지참 시 6천원 → 5천원, 단체 관람 시(20명 이상) 4천원

역사가 '위안부'라 낙인 찍는다 해도, 우리에게겐 그냥 '할머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납치되고 강제로 끌려간 약 20만 명이 넘는 '위안부' 중 한국의 길원옥 할머니, 중국의 차오 할머니,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의 인생 여정을 그린다.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여전히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차오 할머니와 아델라 할머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으며 쇠약해지는 건강으로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할머니들의 신념과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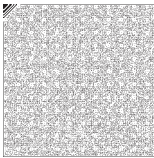


사순절에 더 자주 듣는 말이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회개가 죄와 연관되어서 그런지, 뉘우치라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점점 더 싫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선적으로 는 죄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悔)과 고침(改)을 뜻합니다. 그러나 회개로 번역한 성경원어 그리스말 메타노이아(metanoia)는 '생각하다(noein)와 '넘어, 바뀐(meta)를 합쳐놓은 말로, '생각을 바꾸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잘 안 쓰는 옛말, '회두(回頭)', '회심(回心)'이 메타노이아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머리카락이나 마음을 '돌리는' 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돌리면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또 이렇게 '생각

을 돌이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상 회개란 말 또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悔)은 그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쪽인 고침(改)이 뒤따라야 온전한 단어가 됩니다. '고침'은 방향을 틀어 바꾸는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 마냥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매몰일 뿐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되기 위해선 자기개방, 자기탈출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자기탈출을 위한 출발이라면 이 말 조금은 더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mederico@cup.ac.kr

본당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본당들 (2)



본당 복음화의 해를 지내며, 교구의 본당들이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금성당(주임 : 신진수 신부, 회장 : 오기복 장주기요셉)은 매달 둘째 주일을 전신자를 위한 공동 식사의 날로 정해, 친교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3월 12일(일) 공동 식사의 날



망미성당(주임 : 정영한 신부, 회장 : 주인석 대건안드레아)은 최근 신자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라인댄스 동호회'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동호회가 선교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민락성당(주임 : 김기태 신부, 박정용 신부, 회장 : 민춘식 요한)은 지난 3월 12일(일) 고등학생 3명(각 50만원), 대학생 9명(각 60만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언양성당, 사적지 정비 사업에 힘써...

언양성당(주임 : 계만수 신부, 김현 신부, 회장 : 박경민 안드레아)은 지난 2월 26일(일) 성지관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성당 관할 사적지인 '범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방문객 안전을 위해 등산로 내 리막길에 로프 등을 설치했다. '범굴'은 약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연석굴로 천주교 박해시절 산길의 요충지이며, 피신처로 사용된 곳이다.

명 가까운 순례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순차적으로 성당 관할 사적지(죽림굴, 김영제묘소, 순정공소 등), 신앙사적지 유물전시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순례 및 후원 문의 : 052-262-5312, 3



매년 성당을 방문하는 만

소년 브레시디움, 성인간부 연수



및 경주 일원에서 있었다. 장재봉 신부는 미사 강론 중에 "봉사직을 수행하는 성인간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년단원들이 회합을 통해 성모님의 축복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소년 브레시디움 활성화를 위한 '소년 Pr. 성인간부 연수'가 지난 3월 19일(일) 울산병영순교성지

하자."고 말했다.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지도 : 장재봉 신부, 단장 : 김정균 노엘) 주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자원 봉사에 구슬땀...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 김영규 신부) 재학생 450여 명은 지난 3월 19일(일) 해운대 벅스코 일대에서 개최된 '제15회 KNN 환경마라톤 대회'에 자원 봉사자로 참가했다. 학생들은 대회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였고,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음료 제공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윤전기사사도회, 사순 피정



3월 11일(토)~12일(일) 양산 영성의 집 지도 : 김두완 신부, 회장 : 전규상 아르세니오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 3.31(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일평성당 / 문의: 629-8760~2(성소국)

4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4.9(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제54차 성소주일

· 5.7(일) 10:00~16:00 ·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주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 8)
대상: 초3~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신청마감: 4.19(수) 본당별 참가인원 신청
문의: 629-8760~2(성소국)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서틀버스 운행)
문의: (055)374-8732~3(관리사무실)

본 당

토현성당 행복치유피정

· 3.28(화)~31(금) 20:00 · 토현성당
주제: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사: 이미숙 아가다 수녀 / 문의: 758-6690

구포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PC 사용(엑셀), 운전면허(1종보통)
서류: 교적,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문의: 332-6370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성음악사랑153후원회를 위한 감사미사

· 3.28(화) 19:30 · 성지성당
연주: 아누스테이합창단
주례: 임석수 신부 / 문의: 010-8545-6504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 3.29(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입단 문의: 010-7339-8545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3.30(목) 19:00 ·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441-6403

부산 미비회 후원회 미사

· 3.31(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영
· 문현성당 / 문의: 010-9312-4228(회장)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4.4(화) 13:00~15:00 · 복산성당 소성전
문의: 010-2428-5785

바로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3.27(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3.27(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울산대리구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3.27(월) 19:30 · 야음성당
주제: 세월호참사 3년, 잊지 않겠습니다
강사: 박다영 작가(〈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문의: 465-9508(정의평화위원회) / 무료강의와 미사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3.27(월) 19:30 전포성당
· 3.29(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후원회 월미사
· 3.27(월) 11:00 / 중식 제공
09:30 부산역, 동래 전철역 09:40 온천장 전철역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18 좌동성당
- 수요치유기도회
· 3.29(수) 11:00~16:00 / 점심 제공
09:30 부산역 스타일웨딩홀 지하철 4번 출구
09:30 동래역 09:30 온천장역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18 좌동성당 09:22 해운대역
- 교구 철야기도회
· 3.31(금) 23:00~다음날 04:00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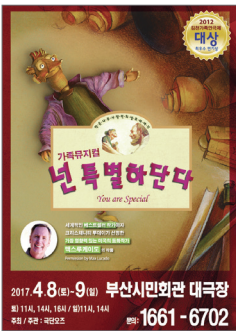
- 울산 기도회
· 3.30(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인상현 신부(사회사목국)

부산교구 성령쇄신대회

일 시: 4월 7일(금) 09:00~18:00

장 소: 주교좌 남천성당

- ▶ 강사: 황창연 신부, 윤민재 신부
- ▶ 미사: 황철수 주교 / 지도사제단
- ▶ 문의: 055-382-9465



■ 읽고 · 보고 · 듣고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가족과 친구에게 속삭여요, 네가 소중한 이유를 알려줄게! 나 자신 속에서
감추어진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감동!

천주교 신자 특별 할인

1층(R석) 35,000원 ▶ 13,000원
2층(S석) 25,000원 ▶ 9,000원

일 시. 4월 8일(토)~9일(일)

토 11:00, 14:00, 16:00
일 11:00, 14: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24개월 미만 아동은 증빙자료 지참 시 무료 입장 예매 및 문의. 1661-6702

감물생태농부학교
4기 지원자 모집

- 대상: 귀농, 혹은 텃밭 가꾸기 등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
- 교육비: 8만원(교육 실습 비용 포함)
※ 선착순 30명 정원, 입금 후 접수 완료

문의: (055)356-0026

4/7(금) 19:00	가톨릭센터	개강식 및 입문강의	환경생태와 생태농업(맹주형/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4/21(금) 19:00	가톨릭센터	농업 정신 1	농사에 도전한 농부이야기(최종수/30년 유기농업)
4/22(토) 10:00	감물생태학습관	실습 1	이랑, 고랑 만들기, 모종 심기
4/28(금) 19:00	가톨릭센터	흙과 퇴비	축산과 퇴비 만들기(오용인/양계 경력 28년)
5/12(금) 19:00	가톨릭센터	농업 정신 2	소농으로 자립하기(서정홍/농부 시인)
5/20(토) 10:00	감물생태학습관	실습 2	친환경 농약 만들기, 퇴비 만들기
5/26(금) 19:00	가톨릭센터	농업과 밥상	GMO와 안전한 밥상(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6/2(금) 19:00	가톨릭센터	수로미사 및 종합발표	창조질서보전과 에너지 문제(김준환 신부님)

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터노)
632-2248, 2360

소중한눈 안과

라식/라섹/백내장/노안교정/안내렌즈
대표원장 김승기(요셉), 신승혜(마리아)

920-7788 센텀시티역 13번출구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입페리얼타워 14층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가인방문요양센터

만 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도와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교우부 우대
민 병 터(사도요한), 윤승신(모니카)

010-7448-7858, 010-4843-3012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

김용기내과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쿠나스)
외 부산대학병원 출신 전문의 7명

www.endocrine-clinic.com
상담 및 예약 245-7100

활기찬 성모재활센터

장기요양보습지정 뇌졸중, 치매
재활전문 노인주간보호센터

주 만 구 (스페라노)
639-1008, 010-4266-7379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

재활전문 명품요양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부산최초 보건복지부인증 병원
간호사 1등급, 간병사 비율 부산 최고

뇌졸중/중풍/통증/척추손상 등 전문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내/외과계 한방협진
입원상담
동래행병원 옆 T. 520-7700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3.27(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서정혁 신부(청주교구)
 문의: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정하상바로영성관 사순 피정

· 4.3(월) 10:00~16:00
 문의: (055)383-3101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봄학기 수강생 모집

초급반 개강: 4.12(수) 19:00 (매주 수, 15회 과정)
 강사: 최경현(사진작가) / 수강료: 20만원
 문의: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462-1870(행정실)

소화영어재활원 간호사 구함(육아휴직 대체근무)

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경력인정 가능)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고 참조(www.sohwa.or.kr)
 마감: 3.31(금) / 문의: 644-1729

가톨릭문인협회와 함께하는 사순절 일일피정

· 4.8(토) 09:00~16:00 · 오륜대순교자성지
 대상: 부산교구 신자 누구나 / 참가비: 2만원
 문의: 010-2831-3530

제4기 부산가톨릭문화학교실 수강생 모집

산문: 4.19~7.5 매주 수 19:00~21:00(10주간)
 운문: 4.20~7.6 매주 목 19:00~21:00(10주간)
 · 망미동 부산가톨릭문화 편집실(예인교육문화원)
 교육비: 15만원(교재 포함) / 문의: 010-3845-8599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 입문 및 초급과정

· 4.23(일) 13:00~18:00
 ·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관 4층
 대상: 가톨릭스카우트에 관심 있는 성인 남성
 참가비: 1만원 / 준비물: 필기도구
 신청: 4.16(일)까지 / 문의: 629-8784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상담: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3.28(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구축주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교통의 성모 묵상 피정

· 4.8(토) 09:30~16:00 · 마리아 피정센터
 문의: 010-9620-4820(마리아학교)

밤중 성시간

· 매주 목 23:00 · 우동성당 / 미사도구, 묵주 지참
 문의: 010-7124-0721(이시찬 신부)

당감총합사회복지관 2017년 사랑의 바자회

· 3.31(금)~4.1(토) · 당감복지관 앞마당
 품목: 의류, 생활잡화, 먹거리, 주점 등
 문의: 896-2320

한티순교성지 피정

· 4.1(토)~2(일), 4.6(목), 8.5(토)~6(일), 9.6(수),
 11.2(목), 11.4(토)~5(일) / 문의: (054)975-5151
 주제: 목숨을 맞바꾼 사랑
 지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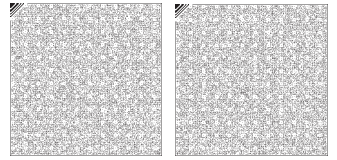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부활 전례피정

· 4.13(목) 16:00~16(일) 13:30
 ·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1만원(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 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남구 지역 예비창업자 모집

지원자격: 남구 지역 거주자 또는 남구 지역 창업
 희망자 우선 / 접수: 3.30(목)~4.13(목)
 접수방법: 부산가톨릭대학교(www.cup.ac.kr) 참조
 문의: 607-4292~3, 010-5639-4292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젊은이 피정

· 4.28(금) 19:00~30(일) · 청주 수녀원
 주제: 삶의 그림자 풀어주기 / 대상: 미혼여성
 회비: 2만원 / 문의: (043)295-5940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 5.5(금) 11:00~6(토) 16:00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 회비: 5만원
 문의: 010-5490-5345 / 사진 접수자만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부부나들이 피정

· 5.13(토) 14:00~14(일) 17:00 · 아론의 집
 회비: 1부부 15만원(비신자, 냉담자도 환영)
 우리는행 1002-544-778270 구요비, 입금 후 연락
 준비물: 미사 및 숙박준비(편한 신발), 개인컵
 문의: 010-4204-1522, (02)777-177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02)764-4741~3, www.holyfac.or.kr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1년과정(기계가공, 00명) / 대상: 만15~30세 남성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 교육비,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졸반
 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 면접전형
 문의: (02)828-3600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5.15(월)~28(일) · 스페인 일주, 파티마, 루르드
 (산티아고, 스페인 남부, 바르셀로나) / 395만원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수도회 성모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4.2(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스승예수제의자수녀회	4.2(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4.2(일) 14:00	광안동 본원	010-8551-3312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3777-4688

인간존중·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①
 부산지역 사립대학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간호학과
<http://www.cup.ac.kr>

부산성모병원 건강강좌
어깨 관절 질환의 이해
 (부산성모병원 정형외과 심형남 과장 강좌)
 일시: 4/4(월) 14:00 장소: 4층 베네딕도 홀
 문의: 933-7855,7852(정형외과) / www.bsm.or.kr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66
카메라타 합창단과 함께하는 사순묵상음악회
르네상스와 바로크 성음악과 세속음악
 일시: 3/27(월) 19:30 장소: 송도성당 성전 *무로 입장
 내용: 르네상스 무반주 다성음악 / 셰익스피어 작품 속 노래 /
 고음악 악기와 카운터테너와 함께하는 바로크 음악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간병사(개인/공동)모집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
 성별, 학력 제한없음
818-1004, 245-1004
 (주)천사사람들

고품격노인요양서비스 전문기관
무지개언덕
노인전문요양센터
 입소 문의 **338-5788**
 북구 구포3동 주민센터 옆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열, 박상욱
554-1088/동래저지철역 1번 출구 맞은편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박인호(루카), 한정문
 소화기 내과: 최병택, 문계현, 유찬희
 류마티스 내과: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주한나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정 옆 바른병원 3층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야네스)

지압식 척추 교정운동구
 기구에 누워 목, 척추, 허리 지압
척추는 인체의 대들보
 하루 2번, 2주만 후 치유체험
 김 영 숙(크리스피나)
010-8312-0510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동부증권
 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팀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

내일성형외과
 최수종(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바라병원 2층) / 서구정 옆